

행복의 윤리학 시론*

김성동

주제분류 인간학, 윤리학

주요어 행복, 수입, 인간관계, 일, 페이아르 드 샤르댕

요약문

우리는 경제적 풍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방식이고 윤리이다. 하지만 이스털린의 역설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는 거짓임이 밝혀진다. 이러한 예측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더 많은 풍요는 우리의 행복에 좋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행복의 원천인 우리의 몸, 가족, 이웃, 절대자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왜냐하면 더 많은 풍요는 우리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 사용할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여가시간을 미디어 소비로 채움으로써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연장된 노동과 미디어 소비가 우리에게 뺏어가는 행복의 회복 없이 우리의 행복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할 것이다.

행복의 또 다른 원천인 노동은 불가피한 고통으로 오해받아 왔다. 이러한 노동의 고통을 여가의 오락으로 상쇄하려는 해결책은 참된 해결책이 못된다. 참된 해결책은 플로를 경험하는 것, 즉 노동에서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삶의 방식, 즉 윤리는 다양한 종교들이 제시해온 것들이다. 우리는 오늘에서야 세속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물질을 제한적으로 추구하며 우리는 우리의 몸, 가족, 이웃과 절대자에 대한 관계를 깊게 해야 한다. 직업생활에서 플로를 경험하며, 우리는 균형 잡힌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행복과 윤리

2006년 7월 영국 레스터(Leicester) 대학 화이트(Adrian White) 교수가 세계 178개국에 대한 여러 국제기구들의 조사 자료에 입각하여 제작한 세계행복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102위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23위, 중국은 82위, 일본은 90위였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 거명된 국가들은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순이었다. 물론 조사된 행복의 요소들이 보편타당성을 가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조사들에서도 우리나라는 대개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우리의 행복추구노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화이트교수는 1인당 GDP가 3만1천500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행복 지수 순위가 90위인 반면 GDP가 1천400달러인 부탄이 8위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여유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의 행복추구노력이 잘못된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화이트 교수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6.2%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답했다.¹⁾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과학은, 특히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과학인 심리학은 인간의 지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간의 감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쉽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왔다. 특히 행복과 같은 마음의 상태는 너무도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한 세대 사이에 과학은 이러한 태도를 전환하였다. 세계행복지도를 작성한 화이트 교수 또한 심리학 전공의 교수이다. 이제 행복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복에 대한 집중

1)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370195

적인 심리학적 연구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라는 영역으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는 인간의 행복을 이루는 대표적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가족 관계, 수입상황, 일, 공동체와 친구, 건강, 개인적 자유, 개인적 가치 등이 다.²⁾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입상황도 분명히 행복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이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입상황은 최소한의 충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단히 결정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일단 그러한 수준이 충족되고 나면 그 중요성이 급속히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³⁾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 2만 달러가 그러한 경계선으로 여겨진다. 경제적 여유만을 행복달성의 수단으로 삼는 태도의 문제점은 바로 경제적 여유와 행복과의 이러한 독특한 상관성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경제적 여유를 넘어서 인간의 행복을 상승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과학자들은 물론 앞에서 지적된 것과 같은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여유와 더불어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윤리이다. 가족관계나 일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자유와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은 바로 윤리이기 때문이다. 윤리는 인간이 다른 인간이나 일과 관련하여 실현해야 할 다양한 가치들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말처럼 ‘윤리적으로 합당한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별로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윤리는 우선 인간이 해도 좋은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물론 윤리는 그러한 기준이다. 하지만 그러한 당위의 근거는 무엇인가? 왜 어떤 일은 하여도 되지만 어떤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여러 방식들이

2) Layard, *Happiness - Lessons from a New Science*, Penguin, New York 2005, 63쪽.

3) Ibid., 33쪽.

있어왔고 한 때는 그것들이 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오늘날 그러한 대답들은 별로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경제 원리에 배치될 수 있는 원리인 윤리를 신봉하는 윤리인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에 윤리를 받아들이는 경제인으로 파악한다.⁴⁾

하지만 윤리학이 탄생한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왜 윤리를 따라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윤리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저술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어떤 것으로서, 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의 목적이다.”⁵⁾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행복은 인생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간존재의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였다.⁶⁾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의 입장에서는 ‘윤리적으로 합당한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표현은 ‘경제적 여유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표현이었던 것이다. 최근이야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진리를 고대 그리스의 애지자들은 그때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대 그리스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10년을 바라보는 한국에서 살고 있다. 오늘 여기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어야 할 윤리는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행복도가 세계 102위라는 것은 우리의 윤리체계의 효율성이, 즉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도가 세계 102위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도 물론이지만 효율적인 윤리도 확보해야 한다. 스웨덴이 세계1위의 행복국가인

4) 김성동 지음, 『소비 열두 이야기』, 철학과현실사, 서울 2006, 217쪽.

5) 아리스토텔레스 지음/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서울 2007, 29쪽.

6)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르게 보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행복학자 미스라이는 “플라톤에게 철학은 도덕이나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더 정확히 말해서 행복에 관한 고찰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포쉐 지음/조재룡 옮김, 『행복의 역사』, 열린터, 서울 2007, 63쪽 재인용.

것은 스웨덴이 가장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그들의 삶의 당위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윤리, 우리의 당위들을 재검토하고 이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윤리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를 비판하고, 이를 윤리의 원래 목적인 인간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검토하여, 윤리적 삶이 인간의 행복한 삶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윤리를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제안을 위해서 먼저 수행해야 할 예비적인 작업은 행복의 요소들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행복의 요소는 다음 일곱 가지, 즉 가족, 수입, 일, 공동체, 건강, 자유, 신앙이다. 하지만 이는 다시 크게 네 요소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수입, 일, 관계, 자유이다. 왜냐하면 가족, 건강, 공동체, 신앙은 가족, 몸, 공동체, 절대자와의 인간 관계라고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두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논의이다. 이 글에서는 전자에 주목하고자 하고, 후자는 다른 글을 위하여 남겨놓고자 한다.⁷⁾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복의 요소들을 바라보면 주된 요소는 다시 셋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왜냐하면 정부의 정치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유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논의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은 수입, 인간관계, 일이라는 행복의 요소들에 대한 우리

7) 심사자의 고마운 지적대로, 현재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보완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변혁은 주권을 가진 개인들의 의식적인 변혁 없이는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주권적인 개인들이 여론을 만들고 여론이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보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는 다른 논문의 과제로 남겨둔다.

의 윤리적 태도를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우리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태도를 제안함으로써 행복의 윤리학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새로운 시도로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시론’이다.

2. 수입

인간에게 경제적 여유가 무엇이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경제적 여유에 집착하는 것일까? 동물이 먹이에 집착하는 것과 인간이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같은 내용의 행동방식이다. 개체의 생존과 종족의 번식을 위하여 먹이나 물질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필수적인 것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착 없이는 생존과 번식이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으로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은 먹이나 물질에 집착하는 본능을 길러왔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상대적으로 풍부한 식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만 년 전쯤에 일어난 신석기혁명⁸⁾이 계기가 되었다. 수렵과 채취를 통하여 동물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식량을 조달하던 인류는 이때부터 목축과 농사를 통하여 인간적으로 식량을 조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차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오천 년 전쯤에는 고대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은 이러한 풍요 없이는 불가능한 건축물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인간의 본능을 변경시키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인간들이 농경을 시작한 이후 역사적 현실과 달리 먹을 걱정을 하지 않고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천 년이나 일만 년은 인간의 전체 역사에 비하면 너무 짧은 기간이다. 짧은 꼬리 원숭이와 인간이 분리된 것이 칠백만 년 전쯤이라고 하니,⁸⁾ 일만 년은 인류역사의 0.14%에 불과하다. 이는

8) 다이아몬드 지음/김정흠 옮김, 『제3의 침팬지』, 문학사상사, 서울 1996, 54쪽.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본능이 발달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생물학자들은 이러한 시간적 지체 때문에 그 타당성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작동하고 있는 이러한 본능을 근사 메커니즘 (proximate mechanism)이라고 일컫는다. 이에 반해 그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궁극 메커니즘(ultimate mechanism)이라고 한다.⁹⁾

인간의 물질에 대한 집착은 본능적이다.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립된 본능은 오늘날에도 근사 메커니즘으로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피임약이나 피임도구로 인하여 섹스가 더 이상 종족번식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인간이 여전히 성에 탐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수입이 더 이상 개체보존이나 종족번식의 수단으로서의 한계효용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수입에 탐닉한다.

사실 인간이 화폐라는 천재적인 발명품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이러한 근사 메커니즘의 작동은 어느 정도에 머물렀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화폐가 아닌 재화는 부패하기 때문에 물질이나 수입에 대한 집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폐의 발명을 통하여 이러한 제약은 상당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근사 메커니즘은 부패라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사 메커니즘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여유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구호는 수입이 기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단계적으로 그 설득력을 상실한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의 국민들은 과거 50년 전보다 두 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조사는 그들의 행복이 별로 증대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감소하기조차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⁰⁾

9) 근사 메커니즘의 대표적 사례로는 이타심이 거론된다. 사회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면 씨족공동체에서 유전자 적합성을 보장하던 이타적 태도는 더 이상 씨족공동체에 살고 있지 않은 인간들에게는 타당한 본능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직도 이타적 태도를 본능으로 가지고 있다. 원숭이들에게서도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Brosnan & de Waal, “A Proximate Perspective on Reciprocal Altruism,” in *Human Nature*, vol. 13, No.1, 2002.

10) 빌렌브룩 지음/배인섭 옮김, 『행복경제학』, 미래의창, 서울 2007, 269쪽.

경제학자들은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나라의 수입과 행복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역설은 앞에서 본 것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정도에 이를 때 생겨나기 시작한다. 2007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을 고려하면 바로 지금이 우리 사회에서 이스털린의 역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며, 따라서 이에 합당한 윤리를 확립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새로운 윤리는 ‘경제적 여유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명제와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에서는 윤리적으로 합당한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명제가 연결된 형태로 제안될 수 있다. 즉 “경제적 여유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에서는 윤리적으로 합당한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윤리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실감의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앞부분은 누구나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뒷부분은 상당한 반성적 사고 없이는 쉽게 감지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돈은 인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하지 못하며,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을 아귀로 만드는 것이다.”¹¹⁾라고 지적한 세네카와 같은 철학자들의 사변적 언설이나 이스털린과 같은 행복 경제학자들의 경험적 논증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도 2만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다다랐다. 우리들 중의 상당수는 조만간 이스털린의 역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경제적 여유의 증대가 반드시 행복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는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감을 가지게 되면, 즉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면, 다시 행복한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여분의 경제적 여유를 얻기 위해 희생한 다른 여유들이 여분의 경제적 여유를 포기한다고 해서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분의 경제적 여유를 위

11) 세네카 지음/최현 옮김, 『행복론』 범우사, 서울 1994, 383쪽..

하여 건강을 잃었을 경우 한번 잃은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듯이, 인간이나 일이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이 반성적 사유의 사전적인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여분의 경제적 여유로 인하여 생겨나는 불행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를 바로 잡으려 하기보다는 여분의 경제적 여유와 윤리적으로 마땅한 삶이 가져오는 행복과 불행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담배가 주는 직접적인 행복과 간접적인 불행을 교육하는 것과 여분의 경제적 여유가 주는 직접적인 행복과 간접적인 불행을 교육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3. 인간관계

여분의 경제적 여유가 빚어내는 불행은 그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의도하지 않게 주로 인간관계가 손상된다는 점에 있다. 인간이 자신의 몸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절대자와 맺는 관계는 그것에 들이는 시간과 정력과 상관이 있다. 즉 이러한 상대방들을 돌보는데 시간과 정력을 들이지 않고서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여분의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고자 할 때 인간관계에 사용될 시간과 정력을 여분의 경제적 여유를 위한 생산에 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는 곧 인간관계의 빈곤을 가져온다.

이러한 특성은 농업사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산업사회에 적용된다. 왜냐하면 농업사회에서 생산 작업은 보통 가족단위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작업을 연장한다는 것이 가족을 돌보는 일과 크게 배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사회의 생산 작업은 보통 개인단위로 이루어진다. 작업장에서 노동을 더 한다는 것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12) 예를 들어, 미국이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한 1870년과 1920년대 중반에

산업사회에서 이러한 특징을 강화시키는 것은 생산 작업의 성격이다. 테일러 등의 작업연구를 응용한 포드식의 생산 방식은 인간의 노동을 기계적으로 만들며 이러한 노동 방식은 인간의 정력을 고갈시킨다.¹³⁾ 설혹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생산 작업을 통하여 정력을 탕진한 노동자로서는 가족을 돌볼 정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여분의 경제적 여유란 생산 작업을 위해 인간관계를 위한 시간과 정력을 빼돌림으로써 가능해지며, 이러한 전환의 결과는 약간의 여분의 수입과 더불어 가족관계의 훼손이다.

작업 시간의 연장이 가족 관계의 훼손을 가져온다면 직장 동료 관계는 적어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사회의 동료 관계는, 퇴니스의 용어를 빌자면,¹⁴⁾ 공동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익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장이 공동사회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한 작업시간의 연장이 인간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평균적으로 볼 때 서유럽의 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은 미국의 노동자들의 작업시간보다 짧다. 그리고 그에 따라 서유럽의 노동자들의 수입은 미국의 노동자들의 수입보다 적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즉 행복 지수는 서유럽의 노동자들이 미국의 노동자들보다 높다. 이러한 통계는 서유럽의 노동윤리가 미국의 노동윤리보다 행복을 성취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¹⁵⁾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그의 삶에

걸쳐 매 10년마다 이혼은 무려 35% 비율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족해체는 산업화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한다. 유엔 지음/최현철 옮김, 『광고와 대중 소비문화』, 나남출판, 서울 1998, 115쪽.

13) 1920년대 후반 포드 공장에서 근무한 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작업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휴식이나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 … 15분이나 20분 정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교대자가 있을 때만 화장실에 갈 수 있었다.” Ibid., 21쪽.

14) 퇴니스 지음/황성모 옮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삼성출판사, 서울 1977.

15) 네덜란드의 한 정치지도자는 이러한 자신들의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네덜란드인들이 일인당 국민총생산의 극대화 목표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프 외 지음/박

대한 가치평가를 미국적인 기준인 수입의 양으로부터 서유럽적인 기준인 삶의 질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시간만이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관계를 진작시켜야 할 여가시간에도 현대인들은 인간관계를 진작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동이 인간을 탈진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못하지 않는 다른 이유는 여가시간에 인간을 재생시키는 활동 즉 레크레이션 활동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전의 시민사회에서 여가활동은 곧 사교활동이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의 대중사회에서 여가활동은 대중매체를 통한 오락활동으로 대체되었다.¹⁶⁾ 이러한 오락적 대중매체로서 인간관계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라디오였다. 라디오가 등장한 이후 거실의 의자배치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자주 언급되는 사례이다. 라디오 이전에는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된 의자들이 라디오 이후에는 라디오를 향해 한 방향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배치는 텔레비전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거실에서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마주보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가지게 되면 이제 거실에 모여 앉지도 않게 된다. 오늘날 가족구성원들은 한 지붕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자 자신의 방에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¹⁷⁾ 하지만 그러한 커뮤니케이션도

윙회 옮김, 『어플루엔자』, 한숲, 서울 2004, 376쪽.

16) 영국의 문화학자 보콕(Robert Bocoock)은 텔레비전의 이러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텔레비전의 출현은 여가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텔레비전 시청은 영국과 다른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여가활동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집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 지역의 사회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대신했다.” 보콕 지음/양건열 옮김, 『소비』, 시공사, 서울 2003, 85쪽.

17) 그라프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아빠는 인터넷에 빠져 있고, 엄마는 위층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래층에서 비디오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간적으로 집 안에 있기는 하지만 집 밖의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지요.” 그라프 외, 96쪽.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사람과 미디어 사이에서 일어난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인간에게 제공되는 문화예술작품들의 원형은 원래 소통을 위한 것이었다.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와 같은 기원적 예술품들이나 수많은 사원들을 장식했던 회화와 조각들은 인간과 신의 소통을 위하여 만들어졌다.¹⁸⁾ 고대 그리스-로마나 르네상스 이후의 회화와 조각은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와 관객이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대화는 관객과 관객 사이에도 또 다른 소통의 통로를 열었고, 마침내는 대중적인 소통의 결과로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승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주어지는 오늘날의 문화예술작품들은 인간과 절대자와의 소통이나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작품들은 오직 자신만을 주목하기를 요구하며, 작품과 인간의 소통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상업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관객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방해한다.

현대인의 미디어소비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던 윈(Marie Winn)이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의 문화예술작품들은 플러그가 달린 마약(plug-in drug)에 가깝다.¹⁹⁾ 마약을 통한 소통은 마치 우주와의 소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오직 자신의 뇌리 속에서의 일어나는 사이버소통이다. 그러한 소통은 운동처럼 자신의 신체와도 소통하지 아니하며, 담소처럼 다른 인간과 소통하지 아니하며, 기도처럼 절대자와 소통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소통은, 영화 『트루먼쇼』에서 묘사된 것처럼, 사이버 절대자인 미디어 프로듀서나 사이버 영웅인 미디어 스타와 소통할 뿐이며 이러한 소

18) 독일의 문화평론가인 벤야민은 “석기시대의 인간이 동굴의 벽에 그린 사슴은 일종의 마법적 도구였다. 그 사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려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령들을 위해 바쳐졌던 것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벤야민 지음/반성완 옮김,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서울: 1983, 208쪽.

19) Marie Winn, *The Plug-In Drug*, Viking, New York 1977,

통은 쌍방적인 것이라기보다 일방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러한 일방성은 지배적인 일방성이다. 미국의 문화비평가 잘리(Sut Jhally)에 따르면, 텔레비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매우 애매하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다른 중요한 일이 생기면 대체로 포기하는 그러한 사소한 일상적 활동이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보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일 외의 일상적인 일들, 예를 들어 편지를 쓰거나 응답 전화를 거는 일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심지어는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자 하는 의지마저 사라진다. 집에서 나가는 외부활동이 없는 한 그래서 일단 집에 머무는 한 텔레비전 시청활동은 거의 방해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배적인 일상적 활동이 된다. 그래서 텔레비전 시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서도 반드시 하고 있는 일이 된다.²⁰⁾

오늘날 인간이 오락적 미디어를 통하여 얻고 있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의 단절이다. 미디어는 자신의 일방적이고 지배적인 권능을 가지고 인간의 감각을 사로잡았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가족과 친구들, 공동체와 절대자와의 소통은 미디어라는 재미있고 화려하고 아부적인 존재의 마법적인 홀림에 의해서 이제 거의 흔적만 남았다.

그렇지만 오락적 미디어는 소통을 단절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한 단절을 영구화시키기 위하여 단절을 영구화시키는 내용들을 미디어 수용자에게 끊임없이 주입한다. 미디어가 세뇌시키는 내용은 미디어 소비가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소비주의 이데올로기이고 노동은 결

20) 잘리 지음/윤선희 옮김, 『광고문화: 소비의 정치경제학』, 나남출판, 서울 1998, 227쪽. 이러한 점에 대하여 미국의 문화비평가인 폭스(Richard W. Fox)도 “TV가 노동과 역방향으로 상관관계를 갖지만 다른 자유 시간 활동과는 더 강한 역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외출하여 하는 활동) 사교활동, 술집이나 모임에 가고 여행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것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잘리, 241쪽 재인용.

코 행복이 아니며 미디어를 소비하는 여가만이 행복이라는 반노동적인 쾌락주의 이데올로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한다.)

이렇게 볼 때 인간관계의 복원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들 중의 하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시도하고 있는 미디어로부터 거리두기이다.²¹⁾ 이러한 접근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의사인 프랑클(Viktor Frankl)에 따르면 여가시간을 자신바깥의 것에 투여하는 원심적 여가생활로부터 자신과 주변사람들을 돌아보는 구심적 여가생활로의 전환이다.²²⁾ 수입과 더불어 생활의 질을 고려하고, 원심적 여가가 아니라 구심적 여가를 지향하는 이러한 전환의 극단에는 자신의 삶의 속도와 압력을 낮추어 스스로 단순한 생활(voluntary simplicity)을 선택하는 하향이동자들(downshifter)²³⁾도 있다.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윤리들은 인간관계의 복원을 가져온다.²⁴⁾

4. 일

일이 고통이고 일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은 역사가 오랜 이데올로기이다. 성서의 창세기에 따르면 여자의 출산의 고통과 남자의 노동의 노고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하여 인간이 짊어지게 된 업보로 묘사되고 있다.²⁵⁾ 물론 그들은 이러한 업보의 대부분을 재물과 종을 통하여

21) 이미 여러 가정과 학교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고, EBS는 자신이 TV 방송국 임에도 불구하고 TV 끄기 실험을 전개하고 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TV가 나를 본다 - 20일간 TV 끄고 살아보기』 2004. 12. 30. 『다랑도 TV 끄기』 2008. 2. 26.

22) 프랑클 지음/이봉우 옮김, 『의미의 의지: 로고테라피의 이론과 실제』, 분도출판사, 왜관 1980, 100쪽.

23) 그래프 외, 356쪽.

24) 인간관계에 대한 이러한 대안들의 필요성을 지적해준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25) 『성서』 「창세기」 3:16-17.

상당히 모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성서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러한 재물과 종을 거느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²⁶⁾

실제 역사에서는 5천 년 전에 고대문명을 탄생시킨 도시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리는 계급의 분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계급의 분화를 통하여 다스리는 자들은 생산적인 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음식과 술과 춤과 노래로 상징되는 소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인간의 역사에서 권력과 돈은 바로 이러한 소비적인 삶을 보장하는 삶의 방식으로 인간의 끝없는 추구의 대상이 되었다.

성서의 창세기 즉 세상의 시작에 대한 설화가 출애굽기 즉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한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세기의 노동에 대한 견해는 사실 도시혁명 이후의 노동체험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류가 애초부터 노동을 그러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인류의 원시적인 노동체험이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조사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접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는 한 방법은 지금까지도 과거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추론하는 것이다. 문화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구석기시대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3-4시간의 노동만으로도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며, 신석기시대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7-8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었다.²⁷⁾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동이 문화인류학자들의 노동과는 성

26) 『성서』 「창세기」 12-13.

27) “[아프리카 남부의] 칼라하리 사막의 쿵 부시맨과 같은 집단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 이들 사냥꾼 채취자들은 하루 3 내지 4 시간만 일해도 기초적 욕구에 필요한 물질을 구할 수 있었다.” 그라프 외, 213쪽. “[아마존 북부에서 약간의 농사를 짓는 수렵채취인인] 마치구엔가족이 6 내지 8 시간 일하면 필요한 물자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Ibid., 214쪽.

격이 다른 노동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노동은 노동이라기보다는 놀이에 가까웠으며, 그런 까닭에 서두르는 법이 결코 없었다.²⁸⁾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쉬 부패하였으며, 남는 것을 팔 수 있는 상대방도 없었다. 그들은 더 많은 노동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고, 노동을 놀이와 굳이 구분하지도 않았다.

비록 원시적인 노동이 이처럼 놀이와 비슷한 그러한 노동이었다고 하더라도 도시혁명 이후의 노동은 유대인들이 이해한 그러한 노동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은 산업혁명을 통하여 더욱 가혹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머포드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의 작업시간과 이후의 작업시간, 그리고 이전의 작업강도와 이후의 작업강도는 기술의 발달에 비례하여 더욱 강화되었다.²⁹⁾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에 대한 마르크스의 열렬한 비판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임금노동이라는 자본주의적 노동구조가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만들며, 이런 까닭에 인간은 노동에서 소외되고, 자신을 잃게 되며, 오직 노동이 끝난 다음에야 자신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비판하였다.³⁰⁾ 노동결과물로부터의 소외가 노동과정, 유적본질, 다른 인간들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그의 비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오늘날 인간의 노동은 채플린이 영화 『모던타임즈』에서 희화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공장자동화가 인간의 근

28) "마치구엔가족이 일을 할 때면 그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들은 차별하고 육체적으로 고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느질을 하거나 옷감을 짜거나 상자나 활과 화살을 만드는데, 우리가 취미나 공예를 즐기듯이 그런 일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시간압력이란 없지요." Ibid.

29) 그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의 영국의 직물공장의 한 여름의 작업시간은 14시간 내지 15시간이었고 2시간 반 내지 3시간의 식사시간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 년 내 16시간의 작업과 1시간의 식사시간만이 허용되었다. Lewis Mumford, *Technics and Civilization*, Harcourt Brace, San Diego 1934, 162쪽.

30) 마르크스 지음/김태경 옮김, 『경제학-철학 수교』, 이론과실천, 서울 1987, 58-59쪽.

육노동을 상당히 대신하였으며, 육체적 고달픔이 노동의 대표적 고통이 되고 있지는 않다. 노동에서 근육의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은 오히려 두뇌근육의 피로감이다. 노동에서의 정신적 긴박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다. 마르쿠제 또한 이러한 점을 『에로스과 문명』에서 지적하고 있다.³¹⁾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언제나 존재하는 실업문제는 일거리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을 일거리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불행하게 만든다. 이러한 실업상태에서는 일을 하기를 소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일은 고통과 불행이라는 특성을 띠고 노동자에게 나타난다. 일은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불가피하지 않다면, 일하지 않는 삶,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행복의 첩경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로또가 가져다줄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유대적 전통과 마르크스적 비판을 통해 강화된 이러한 반노동적 이데올로기는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기업가들에 의하여 아름답게 포장되어 제시된다. 그들은 노동은 어차피 불가피한 고통이지만 이러한 고통이 소비의 쾌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제품을 소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고유한 삶이 아니라 공금자가 희망하는 삶에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무제한적으로 살포되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현혹된 소비자들은 자신의 삶의 행복이 그러한 상품의 소비에 있다고 믿고 있다. 20세기에 시작된 금욕주의에 대한 광고의 무장해제는 제품의 소개를 넘어서서 인생관을 변경시킴으로써 제품을 소비시키는 단계로 나아갔다.³²⁾

하지만 이러한 반노동적인 이데올로기, 친소비적인 이데올로기는 날로 증대되는 노동시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나마 남는 소비시간을 공허하게 만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 결코 약속한 인간의 행복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놓여있는 처지는 바

31) Herbert Marcuse, *Eros and Civilization*, Beacon, Boston 1955.

32) 김성동, 『소비 열두 이야기』, 철학과현실사, 서울 2006, 80-86쪽 참조.

로 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방식을 발견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노동에서의 소외를 소유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하고자 시도하였지만, 현실 역사에서 그러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소유의 문제가 노동의 소외와 본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긍정심리학에 따르면 소유의 문제를 잠시 괄호 속에 담아두고도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노동에서 플로우(flow) 즉 몰입을 경험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긍정심리학자인 칙센트미하이에 따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일에 집중하여 일의 도전에 적절한 기술로서 응전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 새로운 도전에 재응전하는 방식의 작업을 통하여 일을 놀이로 만들 수 있다.³³⁾ 물론 이것은 가능성이며,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에 적합한 작업을 찾거나 기존의 작업을 여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자신의 일에서 플로우를 경험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쨌든 칙센트미하이가 보고하고 있는 많은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노동은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숙명이 아니라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일거리가 될 수 있다. 일에서 이렇게 행복을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방식들은 노동을 즐기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³⁴⁾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일에서 최고의 효율을 올리는 사람은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⁵⁾

하지만 직업생활보다도 훨씬 플로우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여가생

33) 칙센트미하이 지음/최인수 옮김, 『플로우: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한울림, 서울 2004, 263-298쪽.

34) 긍정심리학의 다른 대표자인 셀리그먼은 이러한 작업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직업 만족도가 최고로 높은 천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일컫는다. 셀리그먼 지음/김인자 옮김, 『긍정심리학』, 물푸레, 안양 2006, 260-261쪽.

35) 칙센트미하이 지음/노혜숙 옮김, 『창의성의 즐거움』, 북로드, 서울 2003, 133-155쪽.

활이다. 왜냐하면 직업생활에서는 불가피한 활동에서 자신의 대표강점(signature strength)³⁶⁾이 발휘될 가능성을 찾거나 만들어야 하지만, 여가생활은 대개 자신의 대표강점에 적합한 활동 자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가생활은 자신이 원하는 소비보다도 타인이 원하는 소비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켜 자신의 원하는 소비, 자신의 대표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여가생활을 이끈다면 플로를 더욱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또한 직업생활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할 경우 일은 곧 놀이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일을 평가하는 일차적 기준은 그 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이다. 하지만 일을 행복과 관련하여 생각하게 된다면, 일을 평가하는 대안적 기준은 그 일에서 얻을 수 있는 플로우여야 한다. 플로우가 수입보다 앞서거나,³⁷⁾ 최소한 플로우가 수입과 동등한 평가근거가 된다면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며, 일을 통한 행복의 산출 또한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다.

5. 황금시대: 고대사회와 후기산업사회

신석기혁명 이후 인류는 물질적 생산력을 증대시켜 왔으며, 드디어는 고대문명을 이룰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이들의 행복에 대한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순자³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 여유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윤리적으로 합당한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였다. 아마도 과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확대

36) 개인적으로 어떤 일에 몰입을 쉽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일컫는 셀리그먼의 용어. 셀리그먼, 254-255쪽.

37) 셀리그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는 머지않아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물질적 보상에서 일에서 경험하는 몰입으로 바뀔 것으로 본다.” 셀리그먼, 261쪽.

38) 순자의 성악설은 윤리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김성동, ‘프로타고라스와 순자에 서의 윤리의 문제’ 「중국학연구」 제34집, 중국학연구회 2005.

된 경제적 여유만으로 인간의 행복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이르렀다. 도시혁명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 세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확장된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이 예상한 것처럼 증대되지 않고 있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여유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명제로부터 ‘윤리적으로 합당한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명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사실 종교적인 삶에서 언제나 추구되어 왔던 전환이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망에 제한을 가하고, 이미 성취한 물질적 풍요를 절대자와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며, 자신의 건강한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일반적인 고등종교들이 모두 이상으로 여겨왔으며, 이것을 수도자들에게는 계율로 강제하고, 평신도에게는 이상적 삶으로 권장하여 왔다.

오늘날 우리는 세속적으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물질을 통한 행복의 확대는 역설적으로 행복의 축소를 가져오고, 이러한 역설을 피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확장의 속도를 늦추거나 축소하고, 이러한 물질적 확장에 의하여 축소되어 온 다른 존재들과의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소유적 행복이 아니라 존재적 행복을 확보하고자 하며,³⁹⁾ 노동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저주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 자신과 일과의 일치를 통하여 행복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행복의 윤리이다.

인류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대립하고 투쟁하여 온 신성과 세속의 윤리가 후기산업사회에서 드디어 일치를 보이고 있다. 샤르댕(Teilhard de

39)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영미적 입장과 대륙적 입장을 대비시켰을 때, 그는 소유적 행복을 주목하는 영미적 입장의 한계가 존재적 행복을 강조하는 대륙적 입장의 부활을 불러오리라 상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후쿠야마 지음/이상훈 옮김, 『역사의 종말』, 한마음사, 서울 1992.

Chardin)이 말하는 형이상학적 오메가점은 이러한 윤리의식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⁴⁰⁾ 물론 이러한 행복의 윤리가 전통적인 소유의 윤리를 극복하고 다수의 윤리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하나의 대안적 윤리로서 소수의 윤리로 그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⁴¹⁾

하지만 후기산업사회는 산업사회를 통하여 인류가 새롭게 진입한 새로운 세계이다. 이 새로운 세계는 과거와 달리 인간이 자연의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산업사회 이전에 인간이 자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제국의 열왕들이 치산치수를 하였지만, 오늘날과 같이 물길을 막고 돌리고 산을 자르고 파헤치지는 못했다. 많은 인간들이 태어나고 죽어갔지만, 오늘날처럼 지구의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행복의 윤리는 단순히 산업화를 통하여 진입하게 된 새로운 세계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추구하는 어떤 국지적이고 시대적인 윤리에 그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인류의 주류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것도 비종교적인 세속적인 대안적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인류가 늘 이상향으로 기억해온 황금시대의 부활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으로 간주해 온 오메가점의 출현일 수 있다.⁴²⁾ 지금 우리는 행복의 윤리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응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 (호서대학교)

40) 샤르맹은 진화의 마지막적인 오메가점이 지금 나타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는 그 이유로 ‘사랑’과 ‘다음 생명’을 들었다. 이러한 논의는 쉽게 행복의 윤리와 연계될 수 있다. 샤르맹 지음/양명수 옮김, 『인간현상』, 한길사, 서울 1997, 249-51쪽.

41)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라이트는 역사철학적인 샤르맹의 사상이 정신 나간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현대 과학적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obert Wright, *Nonzero*, Vintage, New York 2001, 302쪽. 셀리그먼 또한 이러한 라이트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셀리그먼, 383-400쪽.

42) 이러한 주장에 대한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논의 또한 다른 연구의 주제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추세를 다음 사이트에서 엿볼 수는 있다. <http://www.naturalgenesis.net>

참고문헌

- 그라프 외 지음/박웅희 옮김, 『어플루엔자』, 한숲, 서울 2004.
- 김성동 지음, 『소비 열두 이야기』, 철학과현실사, 서울 2006.
- 김성동, ‘프로타고라스와 순자에서의 윤리의 문제’ 「중국학연구」 제34집, 중국학연구회 2005.
- 김성동, 『소비 열두 이야기』, 철학과현실사, 서울 2006,
- 다이아몬드 지음/김정흠 옮김, 『제3의 침팬지』, 문학사상사, 서울 1996.
- 마르크스 지음/김태경 옮김, 『경제학-철학 수고』, 이론과실천, 서울 1987.
- 벤야민 지음/반성완,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서울: 1983.
- 보록 지음/양건열 옮김, 『소비』, 시공사, 서울 2003.
- 빌렌브룩 지음/배인섭 옮김, 『행복경제학』, 미래의창, 서울 2007.
- 샤르댕 지음/양명수 옮김, 『인간현상』, 한길사, 서울 1997.
- 세네카 지음/최현 옮김, 『행복론』 범우사, 서울 1994.
- 셀리그만 지음/김인자 옮김, 『긍정심리학』, 물푸레, 안양 2006.
- 아리스토텔레스 지음/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서울 2007.
- 유엔 지음/최현철 옮김, 『광고와 대중소비문화』, 나남출판, 서울 1998.
- 프랭클 지음/이봉우 옮김, 『의미의 의지: 로고테라피의 이론과 실제』, 분도출판사, 왜관 1980.
- 잘리 지음/윤선희 옮김, 『광고문화: 소비의 정치경제학』, 나남출판, 서울 1998.
- 칙센트미하이 지음/노혜숙 옮김, 『창의성의 즐거움』, 북로드, 서울 2003,
- 칙센트미하이 지음/최인수 옮김, 『플로우: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한울림, 서울 2004.
- 퇴니스 지음/황성모 옮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삼성출판사, 서울 1977.
- 포쉐 지음/조재룡 옮김, 『행복의 역사』, 열린터, 서울 2007.
- 후쿠야마 지음/이상훈 옮김, 『역사의 종말』, 한마음사, 서울 1992.

Brosnan & de Waal, "A Proximate Perspective on Reciprocal Altruism,"
Human Nature, vol. 13, No.1, 2002.

Herbert Marcuse, *Eros and Civilization*, Beacon, Boston 1955.

Layard, *Happiness - Lessons from a New Science*, Penguin, New York, 2005.

Lewis Mumford, *Technics and Civilization*, Harcourt Brace, San Diego 1934.

Marie Winn, *The Plug-In Drug*, Viking, New York 1977.

Robert Wright, *Nonzero*, Vintage, New York 2001.

An Essay on the Ethics of Happiness

Sung-Dong Kim

We have expected the economic affluence would make us happy. This is our present way of life. our ethics. According to Easterlin's Paradox, however, this expectation will turn out to be false. With this prescience should we deliberate about what is wrong with us and how to foster our happiness.

The more affluence is good for our happiness, but keeps us away from our body, family, neighbor, and the absolute which are another sources of happiness, because the more affluence require us of more energy and time, otherwise they would be assigned to our body, family, neighbor, and the absolute.

However we are making the situation harder even with filling our leisure time with the media consumption. Without the recovery of our happiness that prolonged labor and media consumption have deprived of us would our happiness be tied up and recede.

The labor, another source of our happiness, has been misunderstood as the unavoidable pain. The solution which tries to set off the leisure amusement against the labor pain is pseudo. The true solution is experiencing the Flow, the happiness in the labor.

In fact, this kind of ethics has been proposed by the various religions. Nowadays we arrive at the same ethics secularly. With the modest pursuit of the material we ought to deepen the relations with our body, family, neighbor, and the absolute. Experiencing the Flow in our job-life we ought to seek the balanced happiness.

Key Words: happiness, income, labor, human relation, Teilhard de Chardin.

김성동 e-mail: dong@hoseo.edu